

장성군,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지역발전 기틀 마련

올해 52건, 국도비 1013억원 확보
농림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장성호 '원더랜드 프로젝트' 기대감
우수지자체 평가 등 35개 분야 수상

장성군이 올 한 해 잇따른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민선 8기 출범 3년 만에 획기적인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에도 공모사업들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총 5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013억원을 확보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공모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선정이다.

총 사업비 391억원 규모로 삼서·삼계면 일원 13.1ha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과 스마트팜 융복합단지를 구축한다. 'K(케이)-아열대' 스마트팜 청년창업 및 수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 스마트 농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장성호에 사계절 관광명소를 만드는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도 관심을 모은다. 총 사업비 300억원 규모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장성호관광지에 예술공원, 어린이테마파크, 야경 등을 조성한다. 장성 북부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교통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국·도·군비 등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장성을 대창지구 거점시설 '편백큰푸름센터', 편백디자인 거리 등을 조성한다. '편백큰푸름센터'는 장성군의 자랑인 축령산 편백자원을 콘텐츠화한 시설로 로컬레스토랑, 생태교육장, 편백체험실 등을 갖추게 된다.

과거 전남제재소를 중심으로 목재 유통이 활발했던 역사성을 연계해 목재문화 중심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7년간의 도전 끝에 이뤄낸 숙원사업으로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밖에 총 사업비 428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조성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공모에 선정돼 전망을 밝게 한다.

장성군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은 수상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평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 평가, 지방도 도로정비, 식량·원예평가, 공공하수도·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 한 해 동안 35개 분야 수상을 기록하며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 상사업비·포상금 9000만원을 획득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에 장성군민들도 호

평했다. 지난 4-10일 군민·공직자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올해 '우수정책 10'에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와 농촌협약이 포함돼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도시브랜드 '성장장성' 개발, 장성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가족 행복센터 개관, 황룡면 신규 소각시설 설치, 북장성하이패스IC(아이씨) 개통, 황룡정원 야외공연장 조성, 백양사 국립공원 주차장 전면 무료개방, K(케이)-푸드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우수정책에 포함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5만 군민과 9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 거둔 뜻깊은 성과"라며 "올해의 실적이 2025년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위기가구 쌀떡 1240kg 나눔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복지동대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복지동대(대장 정정오)가 지난 27일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쌀떡 1240kg을 관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나눔은 월야면민들이 기부한 쌀떡으로 이루어졌으며 복지동대는 이를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아동 가구 등 60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동절기 생활안전 수칙 안내와 건강상태 확인을 병행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정정오 복지동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떡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기동대원들의 정성과 온기로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순영 월야면장은 "해마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복지동대 덕분에 월야면이 더욱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고 있다"며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마음이 널리 확산되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화순군, 1월5일까지 접수

화순군은 1월5일까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직무를 체험할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년12월26일) 기준 학생 본인·부·모(보호자 포함) 중 2명 이상이 화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이다.

다만 최근 2년간 동일 사업에 이미 참여한 학생은 신청이 제한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학생들에게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화순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www.hwasun.go.kr/III>)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시 공개 추첨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은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2025년 1월13일부터 2월14일까지 4주간 본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백신특구 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 배치되어 근무한다.

조미화 인구정책과장은 "동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고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참여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도농상생 광주쌀 나눔 활동 농협광주본부, 10kg 120포 전달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최근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남구장애인복지관(관장 조용호)에서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하는 '도농상생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의 후원을 통해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현호 본부장, 조용호 관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광주본부는 이날 전달식이 개최된 남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서구·동구 장애인복지관 및 엠마우스복지관에 총 120포의 광주쌀(10kg)을 전달했으며 각 기관은 지원받은 쌀을 통해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식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은 농협광주본부와 쌀 소비촉진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쌀 소비촉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참여, 아침밥 먹기 생활화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해 '도농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조용호 관장은 "쌀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농협광주본부에 감사드리며, 쌀 소비촉진에도 적극 협력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지난 24일 함평군 관계자들이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겨울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안전사고 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함평군이 지난 24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겨울철 축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함평군과 안전보안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겨울철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깨띠, 현수막,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해 축제장 내 안전사고 예방, 한파 대비 안전수칙, 화재 예방, 생활속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겨울철 한파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객들에게 안전 홍보물을 전달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환기시킴으로써 안전한 축제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상의 군수는 "겨울철 축제를 찾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5월 '함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22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이며 이들은 불법주·정차 신고, 사고다발 구역 점검, 안전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안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전남도 양대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1월 31일까지 800명 접수

장성군이 2025년 제64회 전남체전과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며 모집인원은 총 800명이

다. 장성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주민으로 활동에 제약이 없는 건강한 개인·단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체전 종목별 경기보조 및 안내 지원, 급수봉사, 노약자부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3월 무렵 열릴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기

본소양교육 이후 체전에 배치될 예정이다.

장성군은 체전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1365' 가입을 통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유니폼, 활동실비 등을 지원한다.

자원봉사자 신청은 장성군자원봉사센터(061-390-7565, 7739)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QR code and '진일보' logo with contact info: @ji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nilbo.com